

“가상화폐 계좌발급, 걱정하지 따져 볼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농협 등 6개 은행 현장점검 실시·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점검”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에 들어갔다. 각종 규제에도 식지 않는 ‘가상화폐 열풍’에 칼을 빼든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특히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을 거라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인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은행권을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6가지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협평가에 관한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객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흡한

점이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에 시행하고, 실명확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자와 은행들에게 당부한다”며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좇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FIU·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146형 모듈러 TV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엔터테인먼트 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300여명의 미디어가 모인 가운데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146형 모듈러(Modular) TV ‘더 월(The Wall)’과 ‘AI 고화질 변환 기술’이 탑재된 85형 QLED TV를 공개하고 미래 스크린의 방향을 제시했다. 모듈들이 146형 모듈러 TV ‘더 월’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올해 추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린다

도내 26개 지원기관 합동, 1월중 시·군 순회 8회 실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의 약속을 담은 ‘2018년도 중소기업 지원 및 사업 설명회’를 25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지자체 등 모두 26개 기관이 합동으로 시·군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중심으로 개최하고, 설명회 이후에는 기업과 1:1 애로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북중기청은 매년초 전북도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신년도 지원정책 방향과 주요 변경사항을 현장에서 설명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새정부에서 유일하게 신설부처로 탄생한 중소기업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시동을 거는 해로, 35만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수요현사, 세일즈맨이 되기 위한 의지를 정책에 담았다.

지원기업 선정·평가를 일차리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고용창출, 성과공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첫걸음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자금, R&D, 수출 등

주요사업에서 우선지원하게 된다.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신사업 영위기업 및 스마트공장 추진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제조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아울러, 시설자금 대출시 기업에서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대출금용 기금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를 시범도입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시행된다.

전북중기청은, 26개기관 합동의 시·군설명회외에, 대학·연구기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가로 14회 실시하는 등, 1월 중 총 22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수혜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신년도 정부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어 설명회를 통해 개선되고 변경되는 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행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스마트폰 위협하는 ‘AI 스피커’

온라인 조사 결과 스피커 이용자 스마트폰 사용 66% 줄어

‘아마존 에코’와 ‘구글 홈’ 등 인공지능(AI) 스피커의 등장이에 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시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스피커들이 향후 스마트폰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CNBC뉴스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술(IT) 컨설팅 기업인 액센츄어(Accenture)와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 인터랙티브(Harris Interactive)가 지난해 10~11월 19개국 2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I 스피커 사용자들의 66%는 스마트폰 사용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뉴스는 AI 스피커의 등장이 애플이나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문제점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스피커 구입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온라인



인 인구의 64%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덜 이용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한 58%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를 줄이게 됐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검색을 줄이게 됐다는 응답도 58%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올해 AI 스피커를 구매하는 이들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

카톡으로 건강검진 결과 받는다

이르면 2분기에 카카오톡을 통해 민방위 통지·건강검진 결과 등 정부·공공기관 전자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카카오에 따르면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문서의 전자유통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메일·모바일 메신저로 공문서

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했다.

카카오는 서류·기술심사를 거쳐 과기정통부에 최종 지정을 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된 업체는 SK텔레콤, 코스콤 등이 있다.

카카오는 1분기 내 지정을 완료되면 상반기 내로 공문서 전자유통 서비스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드대금, 전기요금 청구서를 카카오톡으로 받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국민연금 가입 등 확대될 전망이다. /뉴스

이스타항공, 기대한정판매 블록세트 출시

이스타항공이 기대한정판매 상품으로 ‘이스타항공 블록세트’를 출시하고 오는 1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블록세트는 어린이 승객은 물론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른들을 일컫는 키덜트(Kidult)승객들을 겨냥해 기획한 상품이다.

상세 구성품으로는 이스타항공 항공기, 토윙카, 관제탑, 기내 서비스 카트 등과 같은 항공관련 시설물 소품과 기장, 부기장, 정비사, 객실승무원, 지

상직원, 승객 등 피규어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3만5000원으로 이스타항공을 탑승하는 승객들은 기내에 비치되어 있는 기내 유료 판매 책자 ‘이스타샵(Eastar Shop)’에서 확인 및 구매 가능하다.

이 밖에도 이스타항공은 지난 12월부터 승무원들의 사계절을 담은 한정판 달력 ‘4 SEASONS OF EASTAR JET’을 출시, 판매하고 있으며 모형항공기와 기내 망토 담요 등 다양한 로고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